

## 12. 흠으로 사람을 지으심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고 2장에서는 흠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셔야 했고, 생명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번성을 위해 흠으로 사람을 지으셔야 했다. 그래서 흠을 취한 것이다. 흠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

영은 표현되어야 하고 생명은 번식해서 번성해야 한다. 영은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영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은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다. 바울이 살았을 때 고린도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은 장황하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영을 받는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성령이 한 것인지 악령이 한 것인지 구별이 안된다.

영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의 용도와 목적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다. '형상'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나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모양은 비슷하데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 말을 우상으로 번역했다. 모양은 비슷하데 생명이 없는 것이 우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해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였다. 생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을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해서 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표현되지 수 없다. 이미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또 다른 형상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형상이다. 우상처럼 생명이 없는 것이 사람이다.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부처님이 아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한다.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일체의 형상을 없애 버렸다. 그런 것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영은 표현되어야 하므로 형상이 필요한데 그 형상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오해하고 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하면 안된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표현해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겼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잘하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담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만일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잘 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원숭이를 사람처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옛날에 동물원에 가서 침팬지를 보고 잠시 동안 회의에 빠졌다. '사람과 저놈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팬지가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것은 얼굴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요즘 성형 기술이 발달했으니 침팬지 코를 서양 사람처럼 높게 바꾸면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색깔이 검다는 것 외에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성형을 해서 사람처럼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다.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것으로 단장한다 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구별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신비주의와 같은 데 빠지게 된다.

두 번째로 생명은 반드시 번식해야 한다. 번식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생명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번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연어는 대서양까지 헤엄쳐 다니던 왕성한 힘을 가지고 번식을 위해 모천으로 돌아온다. 알고 보면 죽으러 오는 것이다. 연어는 알을 까고 죽고 메뚜기도 알을 까고 죽는다.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알을 까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도 놀라운 생명이지만 번식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것이다. 흙은 번식하기에 가장 좋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면 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다.

사람의 용도와 목적은 정해졌다.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 형상으로는 그를 표현하고 흙으로는 그의 농장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용도와 목적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사

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것을 빼 놓으면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자기 스스로 동물이 되는 것이다. 어디 가도 이보다 더 큰 용도와 목적이 없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인데 용도가 특별하고 목적이 특별해서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도덕심이나 지혜가 있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동물 중에도 지혜가 있는 것이 많고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인 동물도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지 않으면 동물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은 용도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정해졌다.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다.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인생은 감사할 데가 없다.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무엇이 감사한가. 노력해서 얻으면 감사할 일도 없다. 그만큼 노력하면 그만큼 얻는다.

아담은 이렇게 큰 축복을 버렸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았다고 한 것이다. 속지 않고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속았다고 한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용도와 목적만 기다리고 있느냐. 너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며 유혹했다. 인류가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속은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뭔가 될 것 같다는 유혹이 더해질 뿐이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 신학계에서도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머지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전쟁의 잔혹한 상황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인간이 절망적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길이 없다. 길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창세기 3장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알아 봐야 이것밖에 없다. 심오하게 찾아보아도 이것 이상은 없다.

수양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잠깐은 따뜻해도 더 얼어 버린다. TV에서 스님이 화가 끓고 어찌할 줄 모르겠거든 조용히 앉아서 합장을 하고 '이 뭐꼬?'라고 묻고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라는 것이었다. '이 뭐꼬? 누구 때문에 이런가?'라고 묻고 '모른다.'고 계속 하다 보면 거품이 꺼져서 해결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안되면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누가 이렇게 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다 보면 분

이 풀릴지 모른다.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서 길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개구리가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날려고 하면 길이 있겠는가?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양서류인 개구리가 날려고 하면 물에서도 못 살고 물에서도 못산다. 날고 싶은데 못나니까 살아 봤자 의미가 없다. 인생이 그러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놓아두고 안될 것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받은 축복까지 없어져 버린다.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감사하면 좋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길이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인생이 모르는 죄다. ‘죄’는 과녁에서 빗나갔다는 뜻이다. 다른 길로 가 버린 것이다. 길도 아닌 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목적을 잃으면 방황한다. 방황하는 사람은 목적이 없다. 무엇을 할지 모른다. 용도가 없으면 사람은 허무해진다. 꼭 필요한 데 쓰여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데 쓰이고 있으면 허무해진다. 죽도록 일을 하고 인생을 다 쓰는데도 허무하다. 용도가 없어지면 허무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까지는 결혼하기 위한 용도가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운다. 아기를 키우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어떤 부모는 평생 입을 것도 못입고 먹을 것도 못먹으면서 자식들을 키운다. 그렇게 키워 놓으면 다 나가 버린다. 그러면 허무해진다. 노인들이 허무한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 일생을 바쳐서 키웠는데 아무것도 없다. 자식을 키울 때는 그런대로 보람이 있었는데 키워 놓고 보니 다 가 버렸다. 자기만 남아서 허무하고 자기 용도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자식들과 같이 살자고 해도 요즘은 같이 살 자식이 없다. 점점 더 그렇다. 키울 때 재미있지 키우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이다.

인생은 용도가 계속 있어야 한다. 어딘가 용도가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든 필요해야 되지 용도가 없으면 허무하다. 그래서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래서 행복하지 않다.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고 용도가 없어서 허무하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자기 길을 떠난 데서 생긴 것이다. 못배워서, 가난해서, 못생겨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람이 있을 자리에 있으면 할 일이 있게 되어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다. 속에서 아픈데 어디서 아픈 줄 모르는 것이다.

아기들은 속에서 열이 나면 어디가 아픈 줄 모르니까 계속 짜증을 낸다.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엮어 달라고 하고 무엇을 달라고 한다. 다 해 줘도 속에서 열이 나니까 계

속 운다. 인생이 왜 방향하고 시끄러운가? 가질 것을 못갖고 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고 용도가 없어서다. 자기 일도 아닌데 너무 애를 쓰니 행복하겠는가.

로마서 3장 10-12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엉뚱한 말 같다. 세상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의인이 없다고 하는가. 사람들은 다 자기대로 알고 있는데 왜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는가.

주일날이면 구름떼처럼 모이고 한 교회에 사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몇 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하였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 하며 따라다녔다. 그 당시 오천 명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몰려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아무 데도 조용없는 사람들이었다. 베드로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길이 다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가는 길이 달랐다. 그러니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길이 갈라지면 점점 더 멀어지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익하다.

하나님께 무익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만족이 없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 그 회사가 “너는 무익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만족이 없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야 만족이 되지 “너 같은 인간은 월급 주기 아깝다.”고 하면 만족이 안된다. 회사원이 제일 비참한 것이 집에서는 넥타이를 매고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회사에 가면 자기 책상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보다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 없다고 한다.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책상만 치워 버린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안주는 것이다. 일도 안하고 하루 종일 놀면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옥상에서 담

배만 피다가 퇴근하면 집에서는 회사에 갔다 온 줄 알지만 아무 일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한다. 결국은 퇴사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익하면 다른 데 아무리 유익해도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다. 회사에서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만족한 것이 아니다. 회사에 영원토록 다닐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좋아도 얼마 지나면 자기 자신이 허무해진다. 그러니 만족이 없는 것이다.

알아줄 사람이 알아줘야 만족이 생기지 알아주지 않을 사람이 알아주면 만족이 없다. 천하절색 미인은 사방에서 다 알아주지만 그렇다고 자기에게 만족이 되겠는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줘야 만족이 되는 것이다. 너무 잘난 여자는 만족이 없다고 한다.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좋다고 해야 만족할 텐데 그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이다. 결혼을 해도 자기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에게 맞는 남자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다. 미인박복이라는 말이 있다. 미인이 잘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익하면 사람은 만족이 없지만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절로 만족이 된다. 내가 지금 그러하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겠는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가 나를 데려다 밥을 먹여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비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만족하는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안될 일이 있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다. 나는 자신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가 쓸모없다며 다 버리고 갔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 나 아니면 누가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겠는가. 나는 그분의 가치가 전적으로 좋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이것이 문제였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겠는가? 여기 쉬운 길이 있다. 아주 간단한 길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모두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니까, 이분이 아니면

내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길이 없어진 것이다.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버렸으니 길이 있겠는가. 기차가 철로를 버리면 갈 곳이 없다. 휴전선 근방에는 철로가 끊긴 지점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팻말이 서 있다. 달릴 길이 없으니까 6.25 사변 이후로 그 큰 쇠덩어리가 거기서 썩고 있는 것이다. 그 기차는 평양으로 달리려다 38선이 가로막히는 바람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다. 자동차처럼 갈 수도 없고 배처럼 갈 수도 없다. 그 기차에게는 길이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길이 없으면 갈 데가 없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길이 없어서 버렸다.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길을 잃고 자기가 길을 만들려고 한다. 있는 길로 가면 쉬운데 각자 길을 만들려고 하니 시끄러운 것이다.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다. 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며 반대했다. 국회에서도 차관을 들여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국민 한 사람당 빚이 얼마냐며 반대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류가 생겼다. 멩게까지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멩게라는 놈이 무슨 수로 서울까지 올라가겠는가. 나는 멩게를 처음 보고 수류탄인 줄 알았다. 리어카에 놓고 팔기에 하나 사 먹어 보니 땡벌에서 부패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놈이 고속도로 덕분에 서울까지 올라왔다고만 생각했다. 그 후로 대구에 내려와서 나사렛 형제들과 거제도 해수욕장에 갔는데 멩게를 썰어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기에 먹어 보니 신기한 것이 향긋했다.

남해안에는 매생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오겠는가. 김 양식을 하다 잘못되면 매생이가 되는데 그것이 서울까지 올라왔다.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어물전에 고기 종류가 몇 가지 없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길이 있으니까 온갖 생선들이 다 올라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그 수상이 히틀러가 다 잘못했는데 아우토반을 만든 것만은 잘했다고 하는 말에 힌트를 얻어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했다고 한다. 길이 있으니까 물류가 생기고 물류가 생기니까 산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길을 잃어버렸다. 아담은 자기 길이 없다. 차는 좋은데 갈 곳이 없는 것과 같다. 갈 곳이 없으면 좋은 차가 소용없다. CCC에 있을 때 독일제 9인승 폭스바겐을 기증받았지만 그 차가 달릴 수 없었다. 길이 비포장도로라서 달리기만 하면 고장이 나서 애물단지였다. 나는 폭스바겐이라는 차가 시시한 차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는 비포장 길에서는 달릴 수 없는 차였다. 요즘은 도로가 좋으니까 폭스바겐 차가 많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길이 없으면 못다닌다. 그 차는 중간에 서기가 일쑤라서 화제 거리였다. 독일 사람이 좋은 차라고 기증을 한 것인데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람도 길이 없으면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사람은 길을 잃어 버렸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우리 교회 형제들만 대답할 수 있다. 길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예수는 순종으로 인생의 길을 찾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색이다. 공자님도 길이 있고 석가모니도 길이 있지 않은가? 아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길이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도덕적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되는 길이 쉬운 줄 아는가. 석가모니가 도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석가모니의 고행상은 빼만 남은 모습이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 돌아섰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는 길을 찾아 놓으셨다. 이 길은 노력으로 찾은 길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길을 만들려면 힘을 써야 되지만 만들어진 길을 찾은 것이니까 노력할 일이 없다. 공자님도 길을 만들었고 석가모니도 길을 만들었다. 그분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길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찾았다. 그래서 쉽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기가 쉽다. 만들어진 길이 있으니까 쉽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열두 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네 시간이면 간다. 기차를 타고도 열두 시간을 가야 했는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철도를 놓았기 때문이지 철도가 없을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달이 걸렸다. 옛날에 과거 보러 서울로 가려면 짚신을 등에 짊어지고 한 달을 가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시간이면 된다.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있는 길을 찾았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자님이나 석가모니처럼 길을 만든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길을 만든 분 같으면 나는 못따라간다. 만든 것이 아니다.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쉽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만 길을 찾은 것이 아니다. 자기와 연합한 자에게는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신다. 왜냐하면 찾은 길이 그분 자신이 길이 되기 때문이다. 신기한 일이다. 우리가 해 보면 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찾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된다. 내가 공짜로 얻었듯이 다른 사람도 공짜로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은 다른 사람은 못얻는다. 내가 그냥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아들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으신 길은 그렇지 않다. 그분도 노력하지 않고 얻었고 우리에게도 노력하지 않고 주시고 우리도 노력하지 않고 받는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한 가지 희망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께서 찾았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희망이다. 로마서 3장 23-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였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희망이다. 인류의 희망은 복음에 있다.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함께 길을 잃었던 것이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는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길이 없으면 우리도 길이 없는 것이다. 한 배를 탄 것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가 길이 되신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다. 이 말은 예수가 객관적으로 어떤 길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니까 그와 연합한 자에게 길이 되는 것이다. 아담과 연합한 자는 아담이 길이 되고, 아담이 길이 되면 길이 없는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길이 된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말이다. “내가 곧 길이고…….”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한 말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자에게는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이다.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예수가 곧 길이다. 왜 그런가?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다른 문제 같으면 예수가 길을 찾았다 해도 우리도 역시 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생명 안에서 찾은 것이다. 자기 생명으로 찾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와 연합되면 그가 곧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다.

무슨 길인가?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길이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길이 없다. 그와 연합되지 않는 한 그분은 길이 되지 못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길을 물었다. “그 길이 어딥니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길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다.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며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나냐.”고 하셨다. 예수님은 지도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지도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이 있는 것이다. 연합이 곧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합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기독교의 근본은 구원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런데 지금은 연합이라는 말이 빠져 버리고 없다. 그분과의 연합이 없이는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연합이 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생명의 모든 풍성을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모든 풍성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왕이 되면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내가 누리려고 하면 나는 역적이 된다. 그런데 내가 왕과 연합하면 왕의 모든 권리가 내 것이 된다. 왕비는 왕과 연합했기 때문에 왕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역적이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역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얻은 다른 것은 세상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포함하셨다. 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내려와 보라.”고 했고 제자들도 속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 주세요.’라고 했지만 그분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를 포함한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어떻게 포함되겠는가.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두벽두벽 내려오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포함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모든 인류는 끝장이다. 폐기물이고 쓸모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 다시 다른 사람, 예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번식시켜야 하는 분이다. 사람이 쓸모없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겠는가?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다 멸망이다. 아무 소용없는 동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만드셔야 하는 것이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 죽음의 생명,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생명 안에 나를 포함하신 것이다. 그 안에서 외에는 그에게 포함될 수 없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에게 내가 어떻게 포함되겠는가.

결혼을 해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너무 다르면 결혼을 못한다.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것이지 금수저와 구리수저가 결혼이 되겠는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우리를 산장으로 안내해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는데 옆 자리에 열 명 정도의 잘 단장한 할머니들이 와서 앉았다.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우리에게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라며 이야기를 해 주었다. “미

국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영국계 미국 사람, 앵글로색슨족 순종들입니다. 혼인을 해도 자기들끼리 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하지 다른 사람들과는 거래를 안합니다. 미국에 몇 프로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황태자와 결혼했던 다이애나 비가 결국은 못살았듯이 결혼도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포함되지 다른 데는 포함될 데가 없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포함되겠는가.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는가.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아는 어떤 자매는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능금 아가씨로 선발되기도 했는데 어쩌다 유명한 대학 출신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자살했다. 너무 무시를 받으니까 자살하고 말았다. 천재와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이다. 직장에서도 천재적인 사람들과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한다. 예수가 만일 천재라면 우리는 그와 연합할 수 없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누구나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사람이기만 하면 예수와 연합이 가능하다.

공자님이나 노자나 석가모니와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그분들을 따르고 배우고 훈련해야 그분들 흉내라도 낼 수 있지 그분들 안에는 포함될 수 없다. 공자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생이지지(生而知之)하신 분이라고 했다. 나면서 다 아신 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죽도록 배워도 알까 말까한데 그분은 나면서부터 다 알았다는 것이다. 너무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지 못한다. 자기가 볼 때 답답해서 못가르친다.

율법이나 의식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다. 종교마다 놀라운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되겠는가. 결혼식장이 좋다고 해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의식으로도 우리는 그분과 연합할 수 없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파이프 오르간에 성가대를 갖춰서 대단히 화려하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거기서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과 내가 연합한 자리는 다른 데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다.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나 믿음 같은 것으로도 그분과의 연합이 안된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분과 연합이 되겠는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감정으로 그분과 연합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분과 연합이 되겠는가. 불가능

하다.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는가. 같은 인간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재주가 다르다면 연합이 안되는데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것은 그런 특수한 데서 연합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열린 은혜다. 개방된 은혜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다. 만민에게 열려진 은혜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되거나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은 은혜가 아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자기가 은혜로 입학했다고 하겠는가. 잠 안자고 공부해서 들어간 것이다. 공짜로 들어온 놈은 거기 있을 수 없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정월에 미달되어 엉뚱한 놈이 합격했다. 그러나 결국은 못다니고 말았다. 다른 학생들이 창피하다며 그런 학생과는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분과 연합하겠는가.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감정이 얼마나 충만하면, 믿음이 얼마나 깊으면, 어떤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만민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특수한 사람을 상대하는 분이 아니라 만민을 상대하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열린 은혜가 있어야 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겠는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제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은 못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휘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무엇을 보고 한 말인가. 이 은혜를 보고 한 말이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누가 보았겠는가. 봤다면 제사장밖에 없을 텐데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는데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겠는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졌다고 하였다.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으면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앞드려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만민에게 열린 은혜를 말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땅이 진동했다고 하였다. 땅이 진동하면 사람이 못산다. 지진이 나도 난리가 나는데 땅이 진동하면 사람이 살겠는가.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놀라운 광경이라는 뜻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사건이다. 만민에게 은혜가 열린 것은 휘장이 열린 사건이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이며 땅이 진동하는 사건이다. 이것은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이다. 누구도 열지 못하는 문이 활

짜 열렸다는 것이다.

에덴동산은 화염검으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불칼이 있어서 호랑이도, 사자도 못들어간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포함하신 그 자리가 열리니까 만민에게 문이 열렸다. 그러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는가. 동산의 화염검이 없어졌다는 말만 안나왔지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고 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보고 한 말이다.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땅이 진동했다고 하였다.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다. 할렐루야! 아무리 엉경귀를 내던 흙이라도 밀을 뿌리면 밀이 난다. 이것이 흙의 희망이다. 흙만 이렇게 될 수 있다. 공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못을 만들던 공장에서 갑자기 낫또를 만들 수는 없지만 엉경귀를 내던 흙에 밀을 뿌리면 밀이 난다. 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흙에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으면 저주다. 흙이 된 대로 된다면 저주다. 그런데 흙은 농부에게 달려 있다.

일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살았는데 돌썩밭을 옥토로 만들어 놓았다. 흙은 농부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심어 놓은 나무들은 볼 수 없었던 나무들이었다. 귤, 배, 포도, 단감 같은 신품종을 심어 놓았는데 그 사람은 따먹지 못하고 가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한 그루씩 파다 자기 마당에 심어서 우리는 제주 귤이 나오기 전에 귤을 보았다.

흙은 농부에게 달린 것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얼마나 희망에 찬 말인가.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돌로 만들어졌거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평생 그것밖에 안된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도 흙보다 비쌀 수는 없다. 흙은 몇 만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 번 밭이 되면 영원히 밭이다. 아무리 갈고 열매를 맺어도 밭은 영원히 밭이다. 오래된 밭일수록 더 좋은 밭이다.

처음 개간해 놓은 땅은 생땅이다. 생땅은 땅 자체로는 좋을지 몰라도 농사짓는 데는 좋지 않다. 그것을 갈고 열매를 맺다 보면 부드러운 땅이 된다. 좋은 땅이 된다. 땅이 기름지다고 하는데 논을 가을에 갈아 놓으면 기름지게 보인다. 논두렁을 보면 기름지게 보인다. 기름진 땅이라는 말이 맞다. 시골에 산 사람은 알 것이다. 추심경이라 해서 가을에 땅을 깊게 갈아 놓으면 흙이 질소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드러워진다. 갈아 놓은 땅을 보면 흙이 반질반질하다.

영경귀를 내는 흙이라도 농부만 잘 만나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도 임금과 같이 살면 왕자를 낳는다. 아주 간단하다. 생명의 세계는 너무 쉽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연합하면 흙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부끄러운 것, 거친 것, 더러운 것, 창피한 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과 영광으로 충만해진다. 그 더러운 흙이 가을에 보면 옥수수가 열려서 누르고 벼가 열려서 누른다. 흙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인생의 부끄러움, 인생의 약함을 자기 힘으로 없애려고 발버둥치니까 고생이고 시끄러운 것이다. 개가 사람같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는가. 개를 키우는 집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린내가 집안에 배어 있다. 개가 사람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가 애완견이 되고 애완견이 반려견이 되었다. 개가 얼마나 격상되었는가. 그런데 똥 싸는 것은 여전하다. 아무리 해도 자기 부끄러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땅은 주인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의 풍성함이 영광스럽게 충만해진다. 그러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처녀 때는 깽쟁이짓을 하더니 시집을 가서 아기를 배서 배가 불룩해도 당당하게 다닌다. 처녀 때는 부끄러워하더니 시집을 가서 배가 산만한데도 당당하게 다니는 것을 보면 재미있고 신기하다. 여자 팔자는 뒤옹박 팔자라더니 시집가서 아기를 가져 놓으니까 너무 당당하다. 젖을 먹이느라고 아기가 옷에 코를 흘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입고 당당하게 다닌다. 혼자 살 때는 어디 그렇게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사라진다. 당당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며 여유가 있고 가벼워진다. 모든 것이 다 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보다 축복된 말은 없다. 나는 세계 종교를 다 모르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런 복된 말씀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지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족끼리 순모임을 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말씀을 듣고 가족끼리 모여서 교제해 보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영상으로라도 다시 볼 때까지 여러분 모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